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인간과 동·식물의 공존에 관한
작품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 예술학과 공공미술
김 기 민

인간과 동·식물의 공존에 관한
작품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 예술학과 공공미술

김 기 민

인 준 서

김기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논문 개요

자연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외면한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진보’의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자연과 공존하는 존재로서가 아닌 정복자로서의 그 기본위치를 바꾸어 버렸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태도가 달라지고 자연을 희생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인간중심의 사고가 지배하게 되었다. 결국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오늘날 자연과 인간은 종속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라는 인식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것이고 자연도 인간의 일부로서 서로 중요한 순환작용 속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환경오염은 인류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무분별하고 전체적이라는 점에서 ‘환경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근거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포함하는 ‘전체’에 대한 반성이 현대사회에 요구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의 원인을 인간의 과도한 물질적 욕망에 두고 이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사물의 총체 또는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시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초적인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는 동·식물 등의 소재를 본인의 작품과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에 관해, 분석한 결과로 총 3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형성의 배경을 약술하고 조형적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약술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본론	3
1 . 작품 형성 배경	3
1)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3
2)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현대사회 의식상황	5
2. 조형적 특성	9
1)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 결합	9
2) 착시효과에 대한 자아반영	10
3) 작품의 이미지와 재료적특성	12
3. 작품 분석	15
제 3 장 결론	33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자연으로부터 오다Ⅰ	15
【작품 2】 자연으로부터 오다Ⅲ	18
【작품 3】 자연으로부터 오다Ⅳ	20
【작품 4】 자연으로부터 오다Ⅴ	22
【작품 5】 자연으로부터 오다Ⅵ	25
【작품 6】 자연으로부터 오다Ⅶ	28
【작품 7】 자연으로부터 오다Ⅷ	30

제 1 장 서 론

자연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아도 본래 아름다움을 가지며 스스로 새로움을 창조하고, 물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상호보완적인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산업의 발달이 가속화 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생물구성의 변화가 초래되고 자연과 인간사이의 공생관계가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태도가 달라지고 인간의 욕망이 점차 증대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되는 자연에서 물질적인 발달을 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생각이 인간을 자연에 대하여 순응하거나 공존하는 존재로서가 아닌 정복자로서 그 기본적 위치를 바꾸었다. 결국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지구환경문제’ 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오늘날에 있어 자연과 인간은 서로의 영역에 종속되어 있다기보다 공생관계라는 인식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이고 자연도 인간의 일부로서 서로 중요한 순환 작용 속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두 대상의 공생 관계적 흐름과 조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번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연과 인간이라는 두 영역의 모티브를 결합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무분별한 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위기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연의 소중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또한 나 자신을 캐릭터화 하여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를 만들어 본인의 모든 작품에 결부 또는 결합시켜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의 원인을 인간의 과도한 물질적 욕망에 두고 이로 인해 파괴 되고 오염되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조형적 표현방법으로 실험 연구 및 제작과정을 연구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작업의 근간이 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적인 의미 표현 방법과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둘째,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두 대상의 조화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셋째, 조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착시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눈을 통하여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작품제작 배경과 조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본인의 제작의도, 기법, 재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제 2 장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조각가가 자신의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컨셉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조각의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조각은 과거 시대의 작품을 오늘의 시점과 자신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주관적 형태로서 보다 더 조형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그 자체로서 완벽하며 아름다우며 무한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이 운영되어 나가는 섭리 안에서 존재하며 인간 자신이 자연에서 태어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끊임없는 감동을 받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¹⁾

동양에서는 인간은 자연에 대립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과 인간은 일원이며 인간의 참된 면은 자연과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모든 자연 상태를 동양에서는 자연이라 칭한다. 그리고 조화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뜻하게 된다. 동양인들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하면서 자연속의 일부분이 되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다.

도가²⁾에서는 자연을 하늘과 같이 높게 평가하였다. 자연적인 것은 인간행복

1)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1979), p.1

2) 도가[道家]: 중국사상(中國思想)의 여명기인 선진시대(先秦時代) 이래 유가(儒家)와 함께 중국 철학의 두 주류를 이루었던 학파.

의 원천이요, 인위적인 것은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도가는 순자(荀子)가 비평한 바와 같이 “자연에 가리워 인간을 알지 못하였다” 도가는 이 사상을 끝까지 전개시켜 나갔기 때문에 성인(聖人)의 정신수양의 최고목표는 자신이 대자연, 즉 우주와 합일 되는데 목표가 있었다. 천지에 순응하면서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을 천지와 합하여 하나가 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

노자(老子)⁴⁾는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도(道)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라 하여 우주 만물의 원리로 규정하여서 「인간은 地의 법칙에 地는 天의 법칙에, 天은 道の 법칙에, 道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⁵⁾하였다.

동양의 사상과 같이 자연은 인간에게 커다란 모체이며 범접 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 되어 왔고, ‘인간이 자연계의 하나의 구성부분이며 자연계 역시 인간의 하나의 구성부분’이라는 마르크스⁶⁾ 말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⁷⁾

이처럼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난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감동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자연의 섭리 안에서 미를 발견하고 내적 감동과 결부시켜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즉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자기 표현가능성을 찾는 것으로 자연의 모든 면을 관찰하고 느끼면서 시작된다.

이와 같이 예술에 있어서 자연은 끊임없이 예술가들의 표현 대상이 되어 왔고 재현된 형태가 아니라 예술가의 내면세계에 의해 표현 되었다 할 수 있다.

3) 풍우란, 「중국철학사」역자 정인재, (1989), p.39

4) 노자(老子): 중국 고대의 철학자, 도가(道家)의 창시자.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고 은퇴할 것을 결심한 후 서방(西方)으로 떠났다. 그 도중 관문지기의 요청으로 상하 2편의 책을 써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노자》라고 하며 《도덕경(道德經)》이라고도 하는데, 도가사상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5) 유흥준, 「미학에세이」서울 청년사, (1988), p.123

6)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서 철학과 역사학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사후 더욱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접근방식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사상가들에게 발전, 계승 되었다.

7) 앞의 책, p.125

자연의 표현에는 변형이 따르며 이는 작가의 주관에 따르는 미적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공존한다는 메시지를 작가 자신이 직접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그 방법은 작가의 얼굴을 작품에 결합시켜 현대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상황

현대사회는 점점 도시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 자연을 접하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적 요소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렇듯 실생활의 편의에 의존하며 자연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우리의 자연은 불치의 중병을 앓고 있다. 강과 산은 더 이상 퍼다 버릴 데도 없는 거대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자연에게 자정(自淨)과 재생(再生)의 능력을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사회의 도시와 사람들의 인식은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

우주 만물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서로 고리져 있다. 이는 환경문제 어느 특정분야 또는 특정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구조와 고리져 있다. 다행히 근래 들어 여러 분야에서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지만, 환경운동은 단순한 경각심 고취나 사회적 대응 등 평면적인 운동방식을 좀 더 극복해야 하고, 이론위주 환경교육도 교실 안에서 교실 밖으로 뚫어나와야 할 때이다.

탐구적 생태사랑에 바탕을 둔 ‘운동+교육’의 형태로, 이를 통해 시민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의 자연생태를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의 파

괴되고 변질된 자연환경의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⁸⁾

‘리우(Rio) 회담’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환경파괴는 그 영향권이 자국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자연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근대 서구 유럽사회의 기계론적 자연관에 근거하고 있다. 기계론적 자연관은 과학혁명¹⁰⁾의 영향으로 당시 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각종 기계의 사용에 자극받아 자연까지도 일종의 기계와 같이 보았던 사상으로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인 생성과 소멸이라는 유기적인 자연관을 부정하는데서 시작하였다.

물질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는 기계론적 자연관¹¹⁾의 영향을 받은 현대사회는 물질에 대한 소비가 생존을 위한 형태에서 인간 생활의 질과 내용이 물질에 의해 평가되는 잣대로 변질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를 만들어 냈고 이는 현대 사회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이기적인 물질 추구에 영향을 받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물질에서 얻어지는 부와 권력에 대한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부패와 탈선에 집중하게 하는 질서와 사회 규범이 도외시 되는 무규범, 무가치, 무질서 등의 윤리적 이기주의(Ethical Egoism)¹²⁾라는 사회풍토를 자아냈다.

이와 같이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소비문화와 과도한 물질의 소유라는 생활태

8) 이현주,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인천 내일을 여는 책, (2002), p.153

9) 국제연합(UN)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UN인간 환경회의의 20주년기념 사업으로 브라질의 ‘리우자데자네이루’에서 환경 개발회의를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환경과 개발에 대한 국가, 정부수반들의 전 지구적 화합인 Rio회의로 개최하고 리우선언을 발표하였다.

10) 과학혁명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이 등장한 17세기말 까지를 말한다. 이때부터 자연과학이 급속하게 변혁됐고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 여기는 사고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1) 기계론적 자연관(Mechanistic nature view): 세계와 자연의 모든 과정이 필연적이고도 자연적인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이성으로 그 기계적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12) 토마스 홉스[T.Hobbes,1588-1679] 의해 최초로 주장된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도를 만연케 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소비 형태는 개인이나 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물질에 대한 단기적 이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생산과 소비의 자원이 되고, 폐기물의 최종 처리자인 자연은 자원의 고갈과 넘쳐나는 쓰레기와 폐기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 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같은 오염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리의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인 열대야와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와 해일 등의 유발은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황사현상 스모그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대도시와 농촌 등의 전반적인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주며 자연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산과 들은 점차 지도를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고 이로 인하여 동·식물들이 점차 사라져 감으로써 이와 같은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물의 오염은 생명체의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³⁾

현대사회의 자연 환경 오염은 과거와 달리 이로 인한 피해가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자연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의 인식은 자연에 대한 태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자연환경 오염의 원인이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에 있고 또, 이를 과학에만 의존하는 기술의 발전이 자연환경 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한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다.

13)엄하탁,「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1993)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본인은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본 작업에 이러한 가치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흐름에 반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위와 같은 현대인의 의식상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는 자세로 작품에 임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공존한다.’는 메시지를 작가 자신이 직접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방법으로는 세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작가의 얼굴을 작품에 결합시켜 현대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작가 자신이 관객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한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얼굴을 캐릭터화 하여 대부분의 작품에 배치시켰다. 두 번째 요소는 본인이 평소 어려워하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자세인 눈 마주침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연에 대한 위기상황을 작가의 눈과 마주치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통해 관객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인간과 동·식물의 결합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적 이미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인공적인 힘이 점차 강해지면서 위력적인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우리의 삶에서 자연의 영향력쯤은 과학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이다. 자연의 절대적 힘 앞에서 여전히 인간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공적인 환경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지리적 사고를 도구로 삼아 공존을 이야기 할 때이다.

2. 조형적 특성

1)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 결합

감정으로만 존재하던 내면적 요소가 예술 작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2의 요소인 외면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내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이것은 예술에 있어서 유일한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아름다운 작품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가 조화 있게 협동한 결과이다.¹⁴⁾

이와 같이 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감정 즉 내면적인 것들을 외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컨셉은 자연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공생 관계적이며 조화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내적 의미를 본인의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술에 있어 자연이라는 모티브는 널리 사용되고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너무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이것을 표현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작가들은 자연을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려고 한다. 자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동물과 식물 등의 요소가 있다. 본인은 이러한 자연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곧 자연이 인간의 어머니라는 원초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흡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14)칸딘스키,「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역자 권영필, 서울 열화당, (1979), p.18

본인의 작품[자연으로부터 오다Ⅰ,Ⅱ,Ⅲ]에서와 같이 인체와 텃줄을 인체와 식물로 결합시켜 신체의 일부를 변형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생 관계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자연으로부터 오다Ⅴ], [자연으로부터 오다Ⅵ]에서는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인 열대야와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과 펭귄 등의 동물을 인간과 함께 배치하여 자연환경 오염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고취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은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공존한다는 의미를 위해 배치된 인체의 동세에 힘을 빼 어울림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동물과 인간의 눈의 시선처리를 유사하게 제작하여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였다.

본인의 대부분에 작품 속 인체는 작가 자신을 캐릭터화 하여 배치되어있다. 작품을 만들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닌 작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적인 의미 표현 방법과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본인 또한 현대사회의 한 인간이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대사회 대표하는 인간으로 작가의 캐릭터를 작품에 배치하여 관객이 인지하기 쉽도록 하였다. 작품의 눈이 움직이는 착시효과 역시 타인과의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작품에 적용하였다.

2) 착시효과에 대한 자아반영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경험한 모든 것들 가운데 소재를 선택하여 자기표현의 주관적 형

태로서 보다 더 조형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다.¹⁵⁾

본인이 작품에 착시 효과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대인과 눈을 보며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다. 작품에 적용된 눈동자의 착시효과로 인해 눈을 보고 상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작가의 내면적 자아를 표현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인간상호 간의 정보의 교환이며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 뿐 아니라 몸짓, 신체언어, 음색, 자세, 시선, 침묵까지도 포함한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전달과 이해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해가는 과정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얼굴 표정과 시선만으로 55%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목소리가 38%이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눈 마주침은 의사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⁶⁾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과 눈을 보지 않고 이야기 하는 것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자세는 눈을 마주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울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훈련을 시키면 훨씬 빠른 훈련 성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도 유아 때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인성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처럼 눈 마주치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어려서부터 위와 같이 타인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 심적으로 가깝다고 여겨지는 지인들과의 대화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눈을 보며 대화를 하지만 타인이나 어색한 자리의 만남에서 본인은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끄는 것을 어려워한다.

15)여미순,「자연과 인간의 내적 심상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p.3

16)김영석,「설득커뮤니케이션」서울 나남,(2008), p.327

눈을 마주 보며 의사소통한다는 부분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닌 세계에서도 통용 되는 것이지만 본인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착시효과를 사용하여 관객에게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작품과 눈을 마주치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의 눈을 보면 관객이 보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기계적인 효과가 아닌 유리구슬에 반사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착시 효과¹⁷⁾를 이용한 것이다. 작품의 눈이 상대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에 따라 관객 자신을 바라본다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 관객을 쳐다본다고 느껴지게 한다. 이 효과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더 큰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본연구자의 작품 [자연으로부터 오다 I]과 작품 [자연으로부터 오다 III]을 비교해 보자면 하나의 인체가 바라보는 이를 느끼게 하는 효과와 10개의 인체의 눈이 모여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하는 효과는 더 강한 이미지를 심어 준다. 또한 눈의 움직임으로 작품의 내면을 관객 스스로가 작품에 대한 의미나 느낌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작품의 이미지와 재료적 특성

본인의 구상작업은 관객에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인을 대표하는 인간을 작가 자신으로 정하여 캐릭터화 하였으며 신체의 일부분을 과장시켰다. 과장을 통해 제작한 인체를 접한 관객들은 어린아이로 제작했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유는 얼굴을 과장하고 캐릭터화 하여 아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어린아이의 이미지에서 주는 친근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17)착시(錯視):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사물에 대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착시이다. 미술용어로는 옵티컬 아트(Optical Art)라고 한다.

위함이다. 본인의 작품은 자연환경훼손과 오염을 주제로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작업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관객에게 거부감과 의미의 무거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였다. 본인의 작품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다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작품에 배치되어 있는 인체를 흡사 아동의 프로포션과¹⁸⁾ 유사하게 제작하여 보다 친근하고 호감 가는 이미지로 탈바꿈시켰으며 색감을 최소화 하여 작품의 눈에서 주는 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 또한 본인은 작품을 모두 표정이 없는 무표정으로 제작하여 본인의 여러 작품을 보는 이들에 시각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받아 들일 수 있게 의도 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의 감성에 따라 ‘생각이 많아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다’, ‘귀엽다’ 등의 다양한 느낌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는 폴리 합성수지와 유리구슬을 주재료로 다루고 있다. 폴리 합성수지는 인테리어나 가전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작업에 쓰이는 폴리 합성수지란 쉽게 플라스틱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어떠한 형상을 캐스팅 할 때 가장 용이하게 사용되며 고강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캐스팅 할 때 사용한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스팅을 하기 위해 폴리 합성수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본인의 작품들은 주로 우레탄 페인트(Urethane paint)로¹⁹⁾ 채색하였다. 우레탄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에 비하여 도막의 강도나 방수 기능이 우수하며, 신축성이 있고 외부 노출에 강하기 때문에 실내나 실외에 작품을 배치

18) 프로포션 [Proportion]: 비율 (전체의) 부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19) 우레탄 페인트[urethane paint]:우레탄 결합(-O-CO-NH-)을 도막 속에서 형성하는 합성 수지도료. 옥상 방수재, 옥상트랙용 바닥재, 체육관 바닥 등에 사용된다. 내마모성, 내후성, 내약품성, 내굴절성이 풍부하다.

하기에도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우레탄 페인트를 채색하기에 앞서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해 자극적이지 않은 색상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작품에 눈의 착시효과나 동·식물의 결합이라는 요소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모노톤으로 작품을 채색하게 되었다. 이어 눈은 유리구슬의 투명함과 반사의 효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안구 뒤쪽에 LED전구를 연결하여 정면에서 보여 지는 눈동자의 선명함과 착시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3. 작품분석



【작품 1】 자연으로부터 오다 I

230x230x720mm,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겐, 스테인레스 스틸, 2010

【작품 1】 자연으로부터 오다 I

크 기 : 230×230×720mm

재 료 :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년도 : 2010

제작방법

1. 점토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2. 눈은 유리구슬에 눈동자를 그린 후 합성수지에 결합한다.
3. 조명작업을 한 뒤 유리구슬 뒤쪽에 설치한다.
4. 2T 스테인레스 판재를 꽃모양으로 레이저 가공 후 5∅ 환봉에 알콘 용접을 한다.
5. 테이블 작업을 한 뒤 우레탄 페인트 채색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흔히 대지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이유는 자연이 인간에게 있어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땅에 뿌리내린 식물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 [자연으로부터 오다 I]은 ‘토양의 모태’를 작은 식물 모종형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본인의 작품은 태아의 배에 있어야 할 탯줄대신 어린 줄기를 대신

만들어 연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태아가 탯줄을 통해 모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 역할을 인간에게 자연이 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자연으로부터 오다 I]에는 인체가 우비를 덮고 앉아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인간 자신은 자연을 훼손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키고 보호하려는 인간들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에워쌀 수 있는 우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자연으로부터 오다Ⅲ

120×120×460mm, 합성수지, 아크릴 구, LED 조명, 2010

【작품 2】 자연으로부터 오다 III

크 기 : 120×120×460mm

재 료 : 합성수지, 아크릴 구, LED 조명

제작년도 : 2010

제작방법

1. 점토작업 후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고 실리콘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2. 눈은 아크릴 구슬에 눈동자를 그린 수 합성수지에 결합한다.
3. 조명작업을 한 뒤 아크릴구슬 뒤쪽에 설치한다.
4. 2T 아크릴 판재를 꽃모양으로 커팅한 뒤 5Ø 아크릴 봉에 에폭시로 고정한다.
5. 테이핑 작업을 한 뒤 우레탄 페인트 채색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작품 [자연으로부터 오다III]은 작품 [자연으로부터 오다 I]과 동일한 개념으로 제작하였다. 어릴 적 길가에 쉽게 접할 수 있던 코스모스는 현재에는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 인간들로 인해 산과 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코스모스 역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인간들로 인해 재편된 현재의 모습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작은 화분 속 인간들이 동시에 관람하는 관객을 쳐다보고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속 인간들의 배꼽에서 자라고 있는 코스모스는 인간이 잃어버린 자연성을 상징한다. 자연의 산물인 코스모스와 인체를 결합, 우리 또한 자연에 속한 존재라는 점을 형상화했다.



【작품 3】 자연으로부터 오다 IV

300×250×400mm, 합성수지, 스테인레스 스틸, 소라, 동, 2011

【작품 3】 자연으로부터 오다 IV

크 기 : 300×250×400mm,

재 료 : 합성수지, 스테인레스 스틸, 소라, 동,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1. 점토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2. 이태리에서 가져 온 자연 소라를 합성수지와 결합한 뒤 9Ø스테인레스 환봉을 밴딩하여 마무리한다.
3. 2Ø 동선을 이용하여 망 형태 작업을 한 뒤 산소용접으로 결합한다.
4. 테이핑 작업을 한 뒤 우레탄 페인트 채색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인간은 자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지만 자연을 지키고 보전하는 데는 눈을 감고 귀를 닫는 못된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 작품은 자연을 대함에 있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하는 인간의 양면성을 역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소라 모양의 껍데기로 흡사 바닷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자연을 파괴하는 현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추악한 위선을 감추고 마치 완성된 인격체인 양 포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조형적으로는 미(美)를 추구했다.



【작품 4】 자연으로부터 오다 V

400×500×800mm,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2011

【작품 4】 자연으로부터 오다 V

크 기 : 400×500×800mm

재 료 :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1. 펭귄에 관한 이미지 작업을 조사한 뒤 드로잉 작업을 한다.
2. 점토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3. 눈은 유리구슬에 눈동자를 그린 후 합성수지에 결합한다.
4. 조명작업을 한 뒤 유리구슬 뒤쪽에 설치한다.
5. 테이핑 작업을 하고 우레탄 채색작업을 한 뒤 열처리로 마무리 한다.

작품설명

펭귄의 생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작한 작품이다. 인간들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극심해져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상기온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북극에 사는 펭귄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으며 점차 살아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펭귄들은 본능적으로 허들링(Huddling) 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펭귄은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에게 체온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새끼를 보호하고 종족번식과 유지를 위한 행동이다.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인간 역시 현재 놓여진 위치만 다를 뿐 다가올

미래에 펭귄들과 같이 자연 파괴로 인하여 생존에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자 작품을 제작하였다. 인간과 자연은 공생 관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어미펭귄에 뱃속에 아기 펭귄이 아닌 펭귄의 옷을 입은 인간을 배치시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극대화 하였다.



【작품 5】 자연으로부터 오다 VI

600×1600×1150mm,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겐, 2011

【작품 5】 자연으로부터 오다 VI

크 기 : 600×1600×1150mm

재 료 :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1. 북극곰에 관련 영상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조사한다.
2. 점토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3. 눈은 유리구슬에 눈동자를 그린 후 합성수지에 결합한다.
4. 조명작업을 한 뒤 유리구슬 뒤쪽에 설치한다.
5. 테이핑 작업을 하고 우레탄 페인트로 채색작업을 한 뒤 열처리로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 문제는 비단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야기된 지구 온난화는 세계 곳곳에서 인류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북극 또한 그러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오존층 파괴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더불어 북극곰의 생존조차 위협받게 되었다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아이가 입고 있는 북극곰의 옷은 인간 또한 북극곰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북극곰은 인간과 함께 공존

해야 하는 존재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 북극곰의 눈빛과 좁디좁은 좌대 위에 서있는 불안한 모습을 통해 이상기온 현상으로 녹아 줄어들고 있는 빙하를 형상화 하였다.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해 현 실태의 심각성을 표현 하였다.



【작품 6】 자연으로부터 오다 VII

700×400×2000mm,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2011

【작품 6】 자연으로부터 오다 VII

크 기 : 700×400×2000mm

재 료 :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1. 기린에 관한 기사와 이미지를 조사한다.
2. 점토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3. 눈은 유리구슬에 눈동자를 그린 후 합성수지에 결합한다.
4. 조명작업을 한 뒤 유리구슬 뒤쪽에 설치한다.
5. 테이핑 작업을 하고 우레탄 페인트로 채색작업을 한 뒤 열처리로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올 초 영국의 SUN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 중에 하나인 기린 사냥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제작하였다. 인간의 무분별한 밀렵과 개발은 기린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이것은 머지않아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는 산업혁명 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문명의 이기에 빈틈없이 져어 있는 인간은 말로는 자연보호를 외치지만 그것은 공허한 외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지 오래이다.

작품에서의 기린은 커다랗고 청초한 눈망울로 관객의 시선을 따라 다니며 인간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느낌을 주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7】 자연으로부터 오다 VIII

1000×1000×700mm,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스테인레스 스틸, 2010

【작품 7】 자연으로부터 오다 VIII

크 기 : 1000×1000×700mm

재 료 : 합성수지, 유리구슬, 할로젠,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년도 : 2010

제작방법

1. 점토작업 후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 작업을 한다.
2. 눈은 유리구슬에 눈동자를 그린 후 합성수지에 결합한다.
3. 조명작업을 한 뒤 유리구슬 뒤쪽에 설치한다.
4. 5∅ 스테인레스 환봉을 일정하게 절단하여 등지 형태의 틀에 알콘 용접기로 용접한다.
5. 1.8T 철판재를 깃털 이미지로 레이저 가공한다.
6. 테이핑 작업을 한 뒤 자동차 페인트로 채색을 하고 열처리로 마무리 한다.

작품설명

등지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하지만 새끼 또한 성체가 되면 부모를 떠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자연의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한다. 인간의 삶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자연으로부터 오다VIII]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과연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자연에 속한 것들을 포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새

끼 새가 둥지 안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것처럼 인간 또한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둥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연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점은 일맥상통한다.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 존재의 근원인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제 3 장 결 론

인간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출현할 당시부터 그들은 자연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으며 문화를 만들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갔다. 즉, 인간은 자연 환경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며 자기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물려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 자신들의 삶을 유지 발전시키기도 하고 자연환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존층 파괴, 온난화 현상 등으로 사막화 되면서 자연이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고 공생적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본래 자연은 인간을 양육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신과 같은 존재이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며 가장 완전한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삶의 근본이 된다. 이러한 자연관에 비롯해서 자연의 순리에 순응,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과도한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인의 한 사람인 작가 자신을 캐릭터화 시켰으며 인간과 동·식물의 일부 결합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에 유리구슬을 통한 착시 기법을 이용하여 관객과 소통을 함으로써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래적 인식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자연

에 대한 인간의 의식 전환을 이끌어 내는 일원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현대사회의 자연환경 오염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재앙이다. 이를 자각함으로써 물질적 욕망으로 인한 탐닉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

의적인 풍토 속에서 파괴되고 오염되는 자연환경을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되돌아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백기수 [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권영필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칸딘스키 서울 : 열화당 (1979)

유홍준 [미학에세이] 서울: 서울 청년사 (1988)

정인재 [중국철학사] 풍우란 서울: 형설출판사 (1989)

이현주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 인천: 내일을 여는 책 (2002)

김영석 [설득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2008)

<논문>

여미순 [자연과 인간의 내적 심상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정혜영 [자연환경오염에 대한 조형적 숙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임정혁 [류인작품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기타>

엄하탁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1993)

ABSTRACT

Research of expression works cohesion of human animal and plants

– On the basis of my work –

Kim, Ki-Min

Dept. of public Art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m 's University

“Nature” means self-existence or self-occurrence without artificiality. However, rules of nature has been ignored by scientist for advanced human life, and human stopped being co-exist, but conquered the nature. Since we sacrificed nature for better life, fundamental ideas of preventing nature has been changed due to desire of high qualify life. Therefore, all different types of pollutions, such as air, water, and even soil, become social issues. Finally, these issues made the recognition to people that the humans are not the dominant, but coexistence of the nature. It is very simple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a cycle between human and nature: humanity is part of nature, and also nature is part of humani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environmental crisis, which are able to threat humanity because it is non-distinguishable and general for everyone. To prevent from pollution, modern society demands people to have

self-examination as 'whole' which includes nature, humanity, and society based on responsibility.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rouse attention about pollution of nature by unlimited desire of human, which has demolished environment.

The author gives an essential sense by a point of view as a human as a part of the nature or universe, and combined primitive common languages of animal or plants with the point of view.

This essay consists with three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of purpose and methods of research.

Chapter 2: Main point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with abstract background.

Chapter 3: Conclusions with summary, and provid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